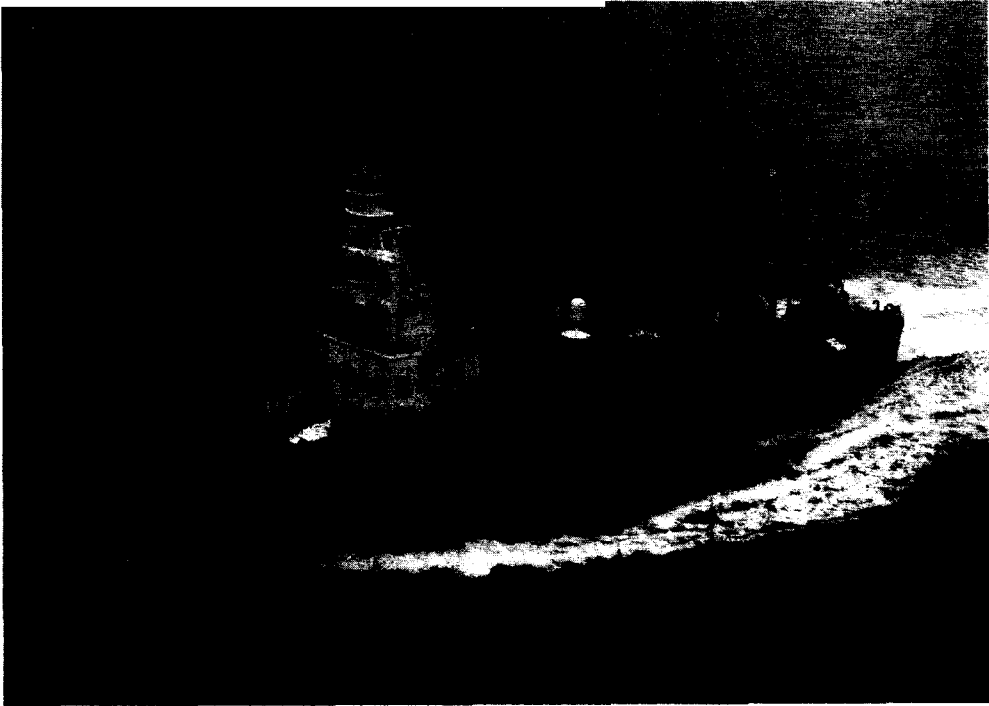


포경재개와 포경선의 확보

변 창 명/한국포경재개추진협의회 대표



1. Moratorium은 일시정지를 의미한다.

1982년 제34차 IWC(국제포경어업위원회) 총회에서 상업포경의 일시정지를 채택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으며, 당시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우리나라가 미국이 들고 나온 페리수정법(修正法)과 펙우드-매그나슨법의 압력에 의해 북양 명태어업을 살리기 위해 포경어업을 완전히 포기한지도 17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들의

뇌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잠시 미국의 펙우드-매그나슨법에 대해 언급해 두어야겠다. 이 법은 1979년에 만들어진 미국 국내법이며, 그 골자는 어느 나라가 수산자원의 국제관리계획의 효과를 저지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장관이 판단하면 60일 내에 그 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법이며, 1982년의 IWC의 모라토리엄 채택에 반대한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이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는 당시 미국 베링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명태조업 쿼

터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리수정법을 근거로 당해국의 수산물과 그 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북양트롤어선이 베링수역에서 어획한 명태량(81~85년간의 연간 평균)이 296,000톤이나 되어 고래(80~84년간 평균 695마리 1,774톤)보다 명태의 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결국 포경을 단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명태조업권을 무기로 한국과 일본의 상업포경모라토리엄 반대를 저지, 통과하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그 이듬해 같은 펙우드-매그나슨법을 재수정하여 미국수역에서의 명태조업 쿼터량을 매년 감소시켜 3년 내에 Zero화하여 각국 어선을 철수시키겠다는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포경어업도 잃고 북양트롤어선의 미국내 명태조업권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원래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말뜻은, 긴급조치로 의한 일시정지(또는 일시지급유예)라든 뜻이며, 실제 1982년의 상업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에서도 연안 포경은 1986년부터 정지하였는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조언에 따라 1990년까지 자원의 포괄적인 평가에 의해 최소한의 포획을 허용한다는 조건부 정지를 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포경국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IWC는 포경 재개시 그 조업상황을 점검할 개정관리제도(RMS)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연시키더니, 1992년 IWC의 과학위원회가 이것을 완성하자 이번에는 이 방식을 이행시킬 개정관리제도(RMP)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실을 들고나와 1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포경재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현 IWC 회원국은 48개국이나 투표권을 가진 45개국중 반포경국측이 23~24개국이며, 포경지지국측이 21~2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 안전의 의결 결정수가 4분의3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관리제도와 같은 중요 안전은 결국 포경재개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비약하여 이 핑계 저 핑계로 자

꾸만 새로운 이유를 제기하여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변화하는 IWC의 세력권과 포경재개의 가능성

지난 18년간 우리 수산인의 의식과 현실에서 잊혀져 온 우리나라 포경어업이 최근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적으로는 연안고래자원의 급증과 이로 인한 어업피해로 어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고래를 보호하면서 일부 과잉번식한 고래를 속아주면서 활용하자는 속음포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지난 십수년간의 IWC 활동이 반포경국들의 숫적 우세에서 포경지지측의 회원국 확보 노력으로 거의 반반으로 바꾸어짐에 따라 상호간에 4분의3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얻지 못해 총회때마다 아무런 안건도 채택하지 못하고 감정싸움만 하다가 헤어지는 비능률적인 국제기구로 전락하자 반포경국중의 한 나라인 아일랜드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포경에 관한 유일한 국제기구인 IWC 자체가 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97년도 제49차 총회에서 "포경추진국의 200해리 내에서의 포경은 그 주권국의 책임아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남극을 포함한 공해상의 포경은 인정하지 말자"는 타협안을 제기 하였고, 그 귀지에 대해 많은 동조를 얻었으나 남극조사포경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의 반대와 여하한 이유에서건 고래는 한 마리도 잡아서는 안된다는 호주, 뉴질랜드 등의 반대로 햇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끝없는 감정싸움으로 IWC 자체가 와해되거나 기능 불능상태에 있기 보다는 일단 서로 냉정을 찾아 타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Green peace, WWF(World Wildlife Fund)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게재해오던 세계의 유력 언론에서도 점차적으로 객관적인 보도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 한 예를 들면, 반포경국중 대

표국인 호주의 Sydney Morning Herald지의 2002년 5월 28일자(IWC 시모노세끼 총회 종료 직후) 보도에서 첫째, IWC 설립은 난획에 의한 주요 고래류의 멸종위험을 방지하자는 것이나 지금에 와서 그 염려는 없어졌으며,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나라들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고래고기를 먹어야 할 필연성은 없을지도 모르나 이 말은 돼지고기에도 해당된다. 둘째, 고래고기의 소비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정상적인 논의가 될 수 없다. 미국이나 러시아 원주민에게는 포경모라토리엄의 적용을 제외시켜 놓고 일본의 포경과 고래 식용문화를 반대한다는 것을 일관성이 없다. 셋째, 남극의 밍크고래 자원량이 많다는 것은 IWC 과학위원회에서 확인되었고, 종의 생존에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일지라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넷째, 포경재개에 대해 이처럼 집요하게 반대하여 IWC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귀엽고 영리한 고래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감정론과 고래를 숭상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스며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이처럼 이치에 닿지 않는 문제에 호주 정부가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인데, 이것은 반포경론자의 지지가 없이는 곤란하다는 연립정권 측의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섯째, IWC는 이미 기능상실 상태에 있고 일본은 여차하면 이를 탈퇴하여 새로운 세계기구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 지지국 확보를 위해 많은 국가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원조를 통해 끌어들이고 있다고 해서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세계정치에서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문제삼을 일은 아닌 것이다. 끝으로, 호주에서도 과거 자랑스러운 포경의 역사는 있었으나, 지금 이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호주, 미국 및 EU 등의 부유한 나라들의 도학자들이 자기의 식습관이나 종교적인 좋고 나쁨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좀 길어졌으나 반포경국의 주요 일간지에서 이처럼 논리적으로 자기 나라의 반포경정책을 신랄하게 비평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작년 시모노세끼 총회에 참석했던 30여개 세계 언론매체에서 나온 보도진들이 한결같이 지금의 IWC로서는 감정싸움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서로 한 발씩 물러나 냉정을 찾고 아일랜드가 주장한 것과 같은 타협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는 논조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포경재개를 원하는 측으로서는 진일보한 변화라 아니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 고래의 포식량이 인간의 총어획량의 3내지 5배가 되고, 21세기 중반이면 100억 인구의 시대가 온다고 예견되는 세계과잉인구시대에 대비한 고래자원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두고 개발도상국과 중국, 러시아 등 과다인구 포용국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단백질 식량수급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포경어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추세이며, 이와 같이 포경어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수년내에 상업포경의 재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국 포경재개협의회가 작년 11월에 필자를 중심으로 뜻있는 분들이 모여 발족하였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포경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3. 포경재개시 문제점과 포경선 설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포경의 일시정지가 실시된 지도 18년이 경과되고 보니 포경재개를 위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물론 포경선과 포대 및 처리시설 등 기본 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에 놓여 있다. 우선 인적자원이랄 수 있는 숙련된 고래경시원, 포수, 처리사 등은 이미 연세가 70을 넘어 실제 조업재개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물적시설인 포경선과 포좌대의 경우 당장 쓸수 있는 것은 한척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포경산업의

중심지였던 울산시가 고래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못쓰게 된 포경선의 형태만이라도 구해보기 위해 사방에 물색하고 있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18년 전의 포경선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 바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포경어업의 환경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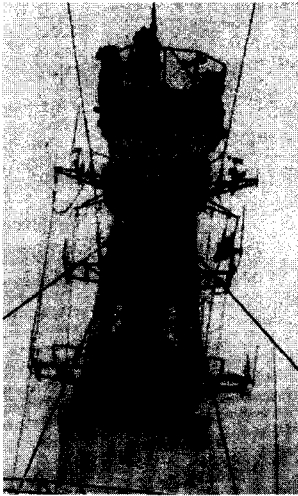


그림 1 발견한 고래군을 확인중
(포경종류, 마리수 판정)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래는 잡되 잔인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82년도 IWC총회에서 상업포경의 일시정지 채택시 세계 여론은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자원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고래를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포경어업에서 구해내자는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Green peace 등 환경보호단체들은 수족관에서 영리하게 돌고래쇼를 연출하는 장면을 보여준 후 포경작살에 맞아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온 바다를 피로 물들게 하는 장면을 찍은 Video tape를 온세계의 TV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잔인하게 죽어가는 고래를 구해 주자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서구선진국의 국민감정을 동조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포경재개를 주장함에 있어 먼저 해

결해야 할 과제는 포살방법을 개선하여 치사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도 상업포경을 지속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일본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기쇼크법 및 마취법의 개발로 포경포의 작살이 꽂힌 후 2~3분이면 치사시킬 수가 있어 이젠 환경단체들의 큰 반발은 없을 것이나, 그러한 시설이 설계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포획된 귀중한 고래의 품질을 높이고 위생처리를 함으로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고 비싸게 팔아 적게 잡고서도 채산성 있는 경영을 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원보존에 기여하자는 노력이 시설면에서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그림 2 포경포

그러나, 실제 설계를 하려고 노르웨이나 일본측에 기본 자료의 협조를 구할 때 쉽게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IWC의 모라토리엄 결의는 포경어업만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워싱턴 조약)와 협력하여 고래고기는 물론 포경에 관련된 기자재의 교역마저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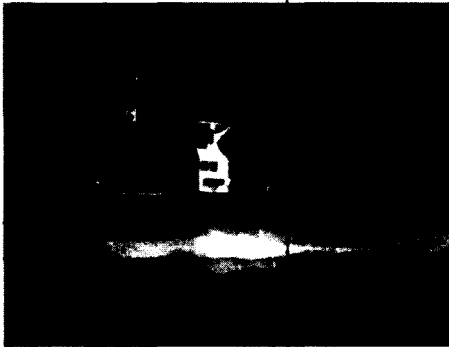
참고로, 본인이 일본의 수산청, 일본포경협회, 공동선박(실제 남극 및 북서태평양의 모선식 조사포경을 운영하는 회사) 및 일본소형포경협회 등과 중고포경선의 도입내지 설계도면의 입수에 대해 협의해본 바에 의하면, 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포경재개 또는 조사포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소형포경협회측과의 협의에서 3~4년 전에 신조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안되면 현재 계선, 상가중에 있는 어선을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니 구체적인 연락이 오면 선박설계 및 운항의 전문가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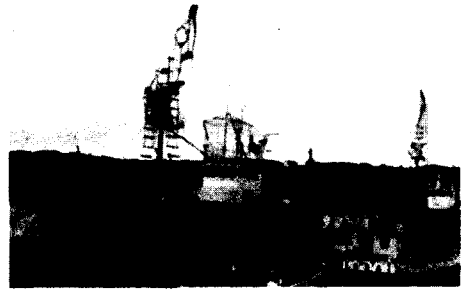
그 동안 나름대로 포경에 관련된 자료 입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솔직히 말해서 선박과 그 설계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며, 참고로 작년 5월 시모노세키 IWC총회에 참석하였을 때 일본포경협회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당시 시모노세끼항에 정박

하고 있었던 모선식 조사포경선단의 포경선(유신마루, 제25도시마루)을 참관하여 선장 및 포수와 대화를 가졌을 때, 견시원이나 포수의 양성 1~2년의 세월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포경선 또한 현재 감선된 어선을 적당히 개조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애매한 사고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주된 이유는 고래자원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목표로 지목한 고래는 한발에 잡아야 하는데,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게 하는 등의 행동은 포경선에 동승하거나 감시의 눈을 집중해온 국제적인 읍서버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난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일본의 모선식 포경선의 사진과 그 요목표 및 연안 소형포경선의 사진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와카야마현 타이찌를 기지로 조업하고 있는 제7카쓰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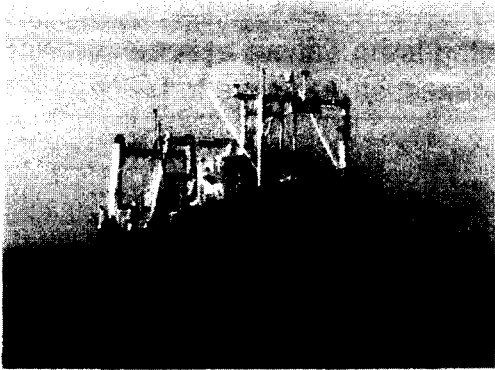


치바현 와다를 기지로 조업하고 있는 제21준유마루



북해도 아바지리에서 포경재개에 대비하여 계선중인 제1야스마루

그림 3 현재 활약중인 연안 소형포경선들



Research mothership (Nisshin Maru)

Takes measurements of whales sampled by the sampling/sighting vessels, and collects and investigates more than one hundred sample items, including tissues, organs, and stomach content.



Sampling/sighting vess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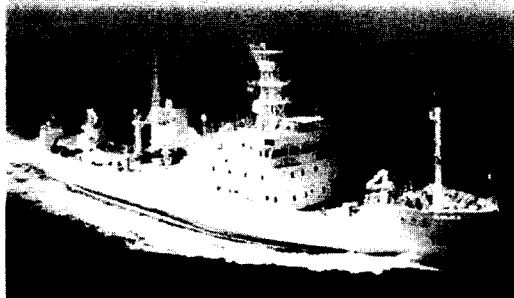
(Yushin Maru, shown in photo, Kyo Maru No.1, and Toshi Maru No.25)

Carry out sighting survey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whales, and sample whales for research on their di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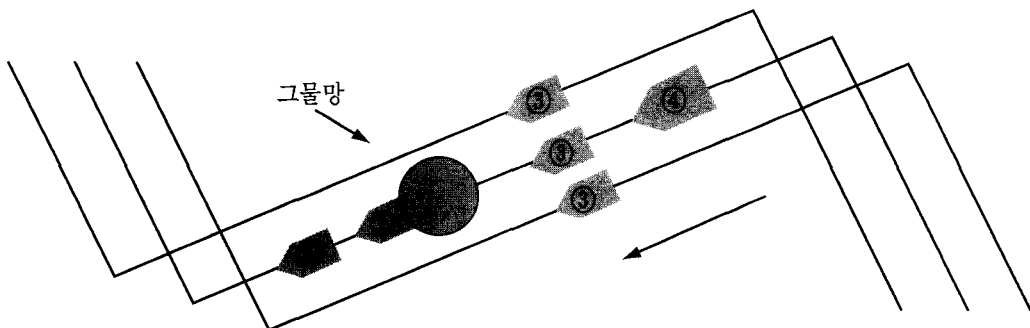
Dedicated sighting vessel (Kyoshin Maru No.2)

Conducts sighting surveys to find out whale abundance and carries out oceanographic observations.



Food organisms research vessel (Shunyo Maru)

Conducts surveys on the prey species and their distribution and abun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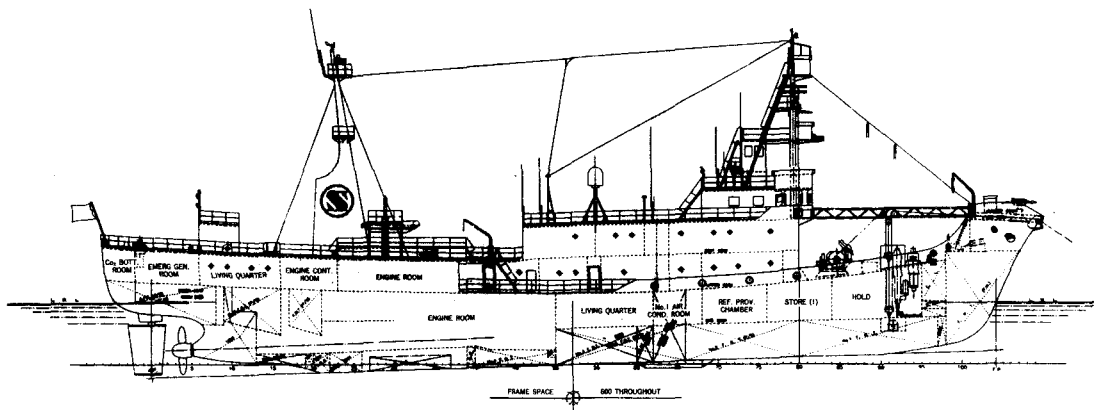


- ① 과학 어탐, 관측 전문선 ② 트롤조사선 ③ 관측채집선 ④ 조사모선

그림 4 일본 북서태평양 조사포경선단



그림 5 일본 북서태평양 조사수역



주요요목			
길이(전장)	69.61m	주기연속최대출력	5,280마력
폭 (형)	10.40m	시운전최대속력	18.714knots
깊이	5.30m	만재항해속력	17.0knots
총톤수	720톤	항해거리	11,500해리
최대탑재인원	25명		

그림 6 용신호 일반배치

※ 일본의 연안소형포경어업은 과거 75척의 허가선이 있었으나 모라토리엄 이후 9척으로 감척 되었으며, 현재 아바지리, 타이찌, 아유가와, 와다의 4개 기지를 중심으로 IWC 규제 고래 종류 13종을 제외한 큰무늬 고래, 흑범고래 등의 소형고래와 돌고래 등을 포획하고 있다.